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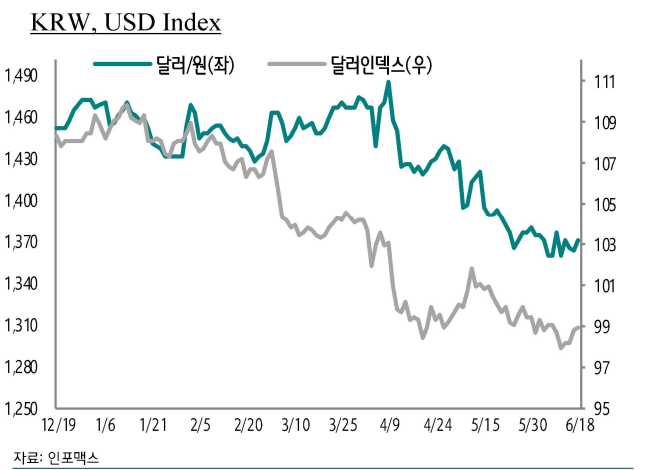
6월19일

[USD/KRW]

USD/KRW 예상 : 1370~1380원
NDF 증가 : 1372.40 (Swap point : -2.75, 1375.15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간밤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경계 발언에 따른 강달러 반영하여 상승 예상. 금리동결 및 점도표 연내 2회 금리인하 전망 유지에 FOMC 결과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기도 하였으나 파월 의장의 매파적 스탠스에 글로벌달러는 강세. 서울환시 달러원 1370원 중반대 개장 후 상승 압력 받을 것으로 전망. 지속되는 중동지역 분쟁 이슈도 달러원 상방 압력 가중 요인. 다만 국내증시 호조 및 고점 인식 네고물량이 상단 제한할 듯.
- (전일 동향) 전일 달러원 환율은 이스라엘-이란 중동 분쟁에 미국 개입 우려에 리스크오프 심리 확산되며 상승. 1380원까지 고점을 높인 후 수출업체 네고물량 및 국내증시 강세에 하락 압력 받으며 1368.6원까지 상승폭을 반납 후 1369.4원으로 정규장 마감.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 파월의장의 매파 발언 • 중동지역 분쟁	• 연준 연내 2회 인하전망 유지 • 국내 증시 강세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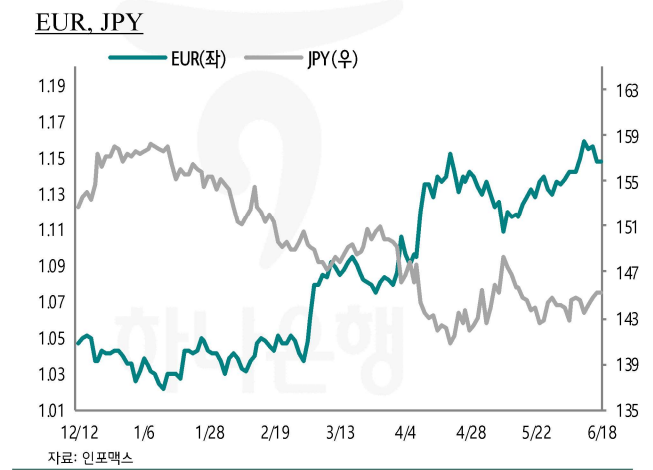
[Global Market]

EUR/USD 예상 : 1.1430~1.1530
USD/JPY 예상 : 144.30~145.30

- (USD Index) 글로벌달러는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경계 발언에 강세. 달러인덱스는 미연준의 연내 금리인하 전망 2회 유지 소식에 98.45까지 급락하기도 하였으나 이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국제금리 상승 반영, 강세 흐름 보이며 전장 대비 소폭 상승 마감.
- (EUR) 유로는 달러 대비 강세 출발하였으나 FOMC발표 후 파월 의장의 인플레 경계 발언에 따른 강달러 반영하며 약세 반전. 유로달러 환율은 1.1461달러까지 급격하게 하락 후 낙폭 일부 반납하며 1.1479달러로 뉴욕장 마감.
- (JPY) 엔화 역시 글로벌달러 강세 반영하며 달러 대비 약세 흐름. 달러엔 환율은 뉴욕장 144엔 중-후반대 흐름 이어가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145엔 상향 돌파 후 상승폭 일부 되돌리며 145.13엔으로 마감함.

글로벌 통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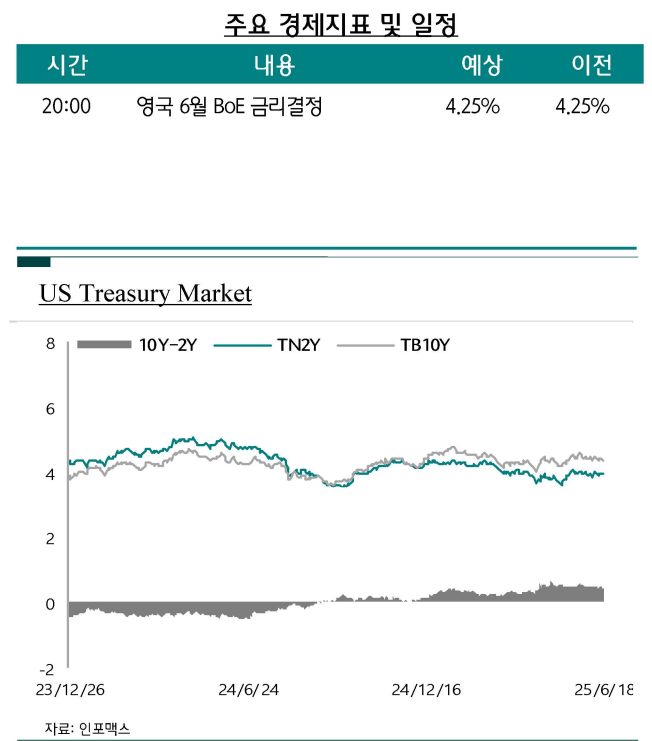
구분	증가(전일비)	재정환율(KRW)
USD Index	98.89 (+0.06)	
EUR/USD	1.1479 (+0.0001)	1571.93 (+7.50)
USD/JPY	145.13 (-0.16)	943.56 (+5.66)
USD/CNH	7.1941 (+0.0018)	190.34 (+0.88)



[Macro Analysis]

미국채 장단기 Spread(10Y-2Y) : +44.90bp (전일대비 +0.14)

- 글로벌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지역 분쟁 관련 발언 및 파월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영향을 받는 모습. 뉴욕 증시는 중동지역 협상 가능성 제시 및 FOMC에서의 올해 2회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 소식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며 강세 보이다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경계에 상승분을 대부분 되돌림.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10% 내린 42,171.66, S&P500은 전장보다 0.03% 하락한 5,980.87, 나스닥지수는 0.13% 오른 19,546.27 마감. 미국채 수익률은 도비시한 FOMC 결과 해석에 하락세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내 파월 의장의 인플레 경계 발언에 낙폭 반납. 단기물은 소폭 상승, 장기물은 하락하며 구간별 혼조세. 유가는 중동 충돌 및 미국 개입 가능성에 따른 긴장감 반영하며 이를 연속 상승 마감.



인플레이션 , 환율 상승 전망